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9월 10일 개막

군, 추진위원회 정기총회 열고 축제일자 등 확정 의결... 9월 10~13일 개최

장수군의 대표 축제인 '장수한우랑 사과랑축제'가 올해 추석 2주 전인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동안 추진된다.

장수군은 군청 군민회관에서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의 주재로 '2026년 제1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축제일자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해 확정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장수군의 대표 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올해 추석 2주 전인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동안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개막식.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예산결산 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추진위원회 위원 변경 및 위촉,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일차 확정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지나해 열린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방문객 32만 명 이상이 찾으며 7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지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신축한 교통 대응과 붉은 색 꽃인 빅베고니아 배치를 통한 상징적 경관 조성, 외부상인존 양성화, 무더위쉼터 운영, 한우마당·사과마당 시설물 개선 등 운영 전반의 내실을 다지며 한층 성숙한 축제로 평

가받았다.

특히 제20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군의 레드푸드 및 농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그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군민이 주도하고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서의 위

상을 더욱 확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김홍기 추진위원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축제 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올해 축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군 대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미래 발전 위한 'AI진안' 비전 제시

동창옥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정책공약서 제출

동창옥 진안군수 출마예정자가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과 의정 성과를 담은 '정책공약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비전 제시에 나섰다.

동(董) 후보는 진안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정책과



현정의 건극을 풀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공약서의 핵심은 'AI진안' 비전이다.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생활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소득 정책과 청년·어르신 복지 강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생명 산업 5급 3축, 블랙푸드 농업 육성 △정형 농생명 기반 레드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 △K-방산·로봇 산업 유치를 통한 진안형 경제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동(董) 후보는 진안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을 살리고 지키며 키워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 중심의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동창옥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진안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전 읍·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 완성 눈앞

진안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와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성수면과 용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추진하며 2026년까지

11개 전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진안군은 9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총 92종 74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수면 농기계 임대사업

소 신축 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 본격 착공되며, 10월 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용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6~10월 신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두 개 분소 신축이 완료되면 진안군은 11개 전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을 마무리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 채용

무주군 보건의료원, 안정적 진료 체계 유지

무주군이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일인 4월 9일에 앞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고 지난 3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이번 전문의 채용은 공중보건의 복무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수 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영유아 검진과 예방접종 문진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보건 의료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상석 무주군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시니어 의사는 1980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988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36년간 서울에서 '기상석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져 온 베테랑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홍천표 무주군보건의료원장은 "농촌 지역 특성상 전문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의사가 합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진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소아청소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채용을 계기로 무주군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우수 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반딧불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나서

무주군은 올해 '반딧불'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주요 사업은 △농 특산물 포장재 지원 △공동 선별비 지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이다.

특히 포장재 지원 사업은 군비 2천만 원 증액으로 총 10억 6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며, 과일·일반 농산물·가공식품 포장재가 지원된다.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은 산지 규모화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존 복숭아



에 사과와 여름딸기 품목을 추가해 산지 유통경쟁력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반딧불 흑미·수박 공동 수확비 지원이 포함돼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계약재배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제5기 공무원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장수군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장수군공무직 지부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윤동수 지부장, 공무직 노조 집행부 임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전국공공운수노조 장수군공무직지부 집행부와 상호 인사를 나누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난해 노사 간 협력의 성과



를 되돌아보고 올해 노동조합 운영에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협의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근무여건과 조직문화 개선, 후생복지 향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진안군은 정확한 공공측량과 토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설치한 국가 공간정보의 기준시설로, 지도 제작과 지적측량, 도로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측량 기준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통합기준점 12점과 수준점 9점 총 21점이다. 통합기준점은 측지·지적·수준·중력 등 다양한 측량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차원·다기능 기준점이며, 수준점은 해발고도 관측을 위한 높이 기준점으로 공공측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진안군은 조사반을 편성하여 기준점의 상태와 설치 환경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측량표지 상태 촬영, 표지 상태 확인 및 분류, 시야 확보 여부, 접근성 등이며, 훼손 또는 멸실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추진 일정은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조사 및 측량표지 상태 확인, 4월부터 5월까지 측량표지 조사보고 및 시스템 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행정-농협 협력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진안군은 2026년 행정-농협 협력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5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진안군 특화품목 재배 기반 확대와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행정과 농협이 협력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행정의 재정 지원에 더해 농협이 추가 20% 최대 2천만 원을 보조함으로써 농가는 자부담 30%로 비닐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지속 추진되며 농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